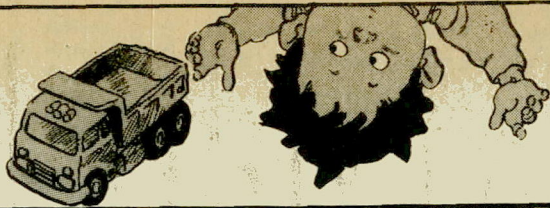


초대그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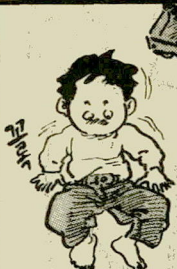
소리하고만 노는 아이

오세영

부르르릉



저건 큰 자가용차 소리다. 주인아저씨가 또 어딜 놀러 가시나 보다. 오늘은 골포장 일거야.



아이는 소리를 잘 듣는다. 밤안에만 혼자 오래 있어서 그런가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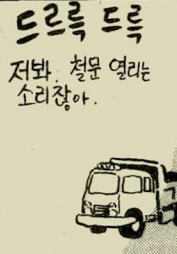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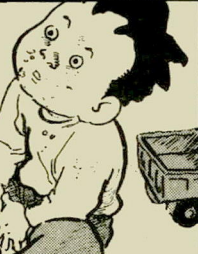
가게가 네개 학원이 하나 월세방만 열네개 있는 사층건물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이는 소리로 다 알아 본다.



아이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박자국 소리와 들어오 그제 누굴지 궁금 할 수 있다. 쿵쿵쿵쿵 박자국이 요란하면 재수하는 삼층주인집아들이고 툭툭툭툭 앞꿈치로만 계단을 밟으면 돌림없이 옥상방의 배부른 새댁아줌마나

웁다다다 툭툭

이층 속셈학원에서 아이들이 죽어 내려 오는걸 보니 일층 가운데 가게 실내 포장마차공이 문물 열 시간인가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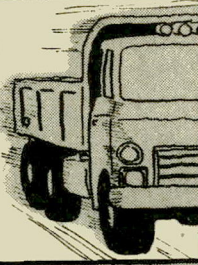
드르륵 드르륵

저봐 철문 열리는 소리잖아.



작년까지만 해도 아이는 밖에서만 놀았다. 영마 아빠가 모두 밀 나가시고 나면 누나랑 둘이서 창고에서 아파트 놀이터에 가서 꽤도 타고 미끄러도 타고... 누나가 죽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는 밖에서만 놀았다.

누나가 창고에서 태스 바퀴에 깔리고 난뒤 영마가 한달동안 화장품 솔만드는 공장에 다가지 양으로 실 때 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갇혀 있던 않았다.



아이가 호자 방안에 갇혀 있게 된 것은 아빠가 한달내내 불감공장에 다니면서 받은 월급을 방세로 주인 아저씨에게 거절 다 바치고 난 뒤부터다.



위이이잉

털썩 치익 털썩 치익

어? 이전 무슨 소리지? 아침 어제 지하실에 가방공장이 이사 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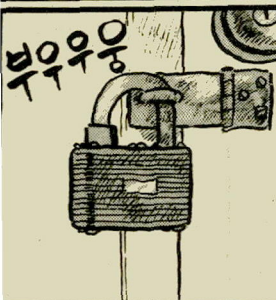


아이는 하루종일 소리하고만 놀다. 영마아빠가 일 나가시는 새벽부터 영마 아빠가 돌아 오시는 탕중까지...



부르르릉

저건 작은자가용차 소리다. 주인 아줌마가 또 어딜 놀러 가시나 보다. 그렇지. 수영장에 가실 시간이구나.



또각 또각 베리리리리
아아아아앙
툭툭 툭툭 툭툭 치익 툭툭 치익
쿵탕 쿵탕
드르르르르...